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인간의 문화적 사유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사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등의 모든 추상적인 문명적 구조물은 사물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다. ‘공간’이라 부르는 구성체에 사물들이 ‘자리잡기’를 하면,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개입하고, 그 진경(珍景)을 관람하거나 개입하는 관객이자 참여자로서 ‘인간’이 등장하는 것이다.

인간 없이도 공간과 시간은 오롯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공간과 시간 없이는 어떤 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다. 인간은 공간, 시간과 함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삼위일체임은 분명하지만, 가장 약한 세 번째 고리에 해당한다. 오만하고, 아둔하며, 쉽게 흔들리고, 빠르게 잊는다. 그 결점 덕분에 새로운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하니 고마운 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

기고



김 진 히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무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즐기면서, 덕담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족이 많을 것이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는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와 함께 도란도란 송편을 만드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추석이 더욱 기다려진다. 그런데 9월은 여전히 한낮의 온도가 높아서 자칫 신경을 쓰지 않을

현장칼럼



정 서 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책임연구원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생의 오후엔 진정한 ‘나’를 찾아 온전히 내 앞에 마주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치 우리 사회의 중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다. 중년에 접어들면 내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나 청년,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하지만, 중년층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책임지는 위치에 있건만,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 사회의 핵심이자 운동력의 원천인 중

비사벌초사가 사라진다면

전주의 ‘비사벌초사’이야기를 좀 하려고 서두를 길게 꺼냈다. 전주 한옥마을 옆 동네에 있는 ‘비사벌초사’는 항일시인이자 목가시인으로 불리는 신석정(1907~1974) 시인이 1961년부터 여생을 보낸 집이다. 신석정 시인은 이 집에서 ‘산의 서곡’, ‘대바람 소리’ 등의 시집을 펴냈다. 지금은 신석정 시인 가족과 인연이 있던 분이 매입하여 찾집을 하며 고택을 보존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 비사벌초사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재개발사업추진위 측에서는 찾집을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대문호들이나 예술가들의 집 가운데에도 집 그대로 있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이유로 문화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은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다. 그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고충을 이해하지 않고 찾집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옹색하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집을 그대로 다른 자리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른 공간으로

옮기면, 마당에 자라고 있는 수십 년 묵은 거대한 배롱나무를 비롯한 나무들과 비사벌초사를 구성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옮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른 공간으로 옮겨진 비사벌초사의 문화적 가치가 옮겨진 곳에서 온전히 살아남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특별한 의미가 스미고, 문화가 만들어진 공간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문화공간이 지닌 문화적 가치의 한 축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공간은 인간의 욕망, 의지, 사유가 투사된 것이다. 끝내 비사벌초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이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동의했다는 것의 의미하고, 문화 공간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줄 몰랐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 사라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문학과 예술 지망생들이 거장들에게 “시(음악, 예술)가 뭐예요?”라고 질문할 때 주어지는 가장 명쾌하고 진지한 대답은 “그것은 삶이다”라는 답이다. 그렇다, 가장 가치 있는 문화는 삶의 공간에 깃든 문화

다. 전시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문화의 전부가 아니다. 삶의 모든 장르에, 생을 영위한 공간 모두에 문화와 예술이 존재한다. 삶 속에 서정을 담으려는 이들이 오래된 삶의 공간들인 노포를 찾다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아파트도 사람 사는 공간이니 삶이고 문화다”라고 말할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단일하고 균일한 복제물이 수직으로 쌓인 콘크리트 공간에 밀어 넣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삶의 근원적인 욕구의 본질은 아니다. 문화와 예술이 스민 공간을 오래도록 지키고, 즐기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본질이다.

자본적 욕망에 굴복하여 문화공간을 밀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 문화적 상상력을 말하지만, 상상력은 공간 없이 탄생하지 않는다. 공간적 근원 없는 상상력은 공허하고 오래 유지되지도 않는다. 공간과 사물과 어우러진 상상력만이 시간의 산맥을 타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 부디, 지키는 것부터 하시라. 비사벌초사와 주변을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지 모르니 시간을 더 갖고 고민하시라.

안전한 명절음식 준비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면 쉽게 상황 우려가 있어 음식 준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 건강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엄마, 아빠는 폭풍한 장보기에서부터 식재료 전처리, 음식물 보관 등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도 매년 명절이 되면 위해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올바른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원은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밤, 토란 등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성분을 알아보는 이산화황을 검사하고, 사과, 배 등 제수용 과일과 채소류에서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다. 또한 병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들 중금속, 타르색소, 동물용의약품, 방사성 검출 여부를 검사하며, 환과와 식용유 등은 기름의 부패 정도를 알아보는 산가, 측색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전류는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식품규격기준을 초과한 식품은 신속하게 전국 유통기관

에 알려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부정식품 유통을 막는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안전성 검사로 유해식품을 철저히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음식 준비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배양이 등으로 쓸쓸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 준비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가정에서 명절 음식 준비의 기본은 장보기이다. 장을 볼 때는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마스크는 필수이고, 미리 구입 목록을 작성하여 최대한 신속히 장을 보는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인터넷 장보기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명절 장보기는 주로 전통시장 등에서 하고 있어 폭폭하고 안전한 장보기가 필요하다. 식재료 장보기는 구입 순서가 중요하다.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으로 시작해 과일, 채소, 햄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

품을 고르고 나서, 미생물 번식과 관련이 있는 육류, 그리고 어패류 순서로 구입하는 게 좋다.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아이스백에 보관하여 냉장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되지 않는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은 칼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가열 조리할 때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계란껍질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존재 할 수 있어 다른 식재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부득이 만진 경우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음식 만드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장에서 유통되는 제수용품과 성수식품에 대한 철저한 유해성 검사로 시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로 편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社說

학동 참가 재개발 비리 수사 마지막 기회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해외 도피 행각을 마치고 자진 귀국, 체포됐다. 문씨는 광주 학동 철거건을 붓고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이미 구속된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더 분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면서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반을 진술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씨는 해당 재개발사업 현장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으나 사고 발생 나흘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석 달째 귀국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씨는 청탁·알선한 업체가 조합·원청에 의해 실제 사업자로 선정돼 불법 업체 선정 과정의 추가 연루자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나눠먹기 및 단가 후려치기, 공사비 부풀리기, 재개발 사업 비위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문씨 귀국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고의 전말이 하루라도 빨리 속시원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그래서 책임이 드러난다면 상응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경찰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씨 또한 5·18구속부상자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불법 재하청 의혹의 중심에 선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피해자와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인 때문이다. 현재 재판도 본격화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은 책임을 떠넘기듯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2차가해까지 이어져 피해자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문씨가 긴 침묵을 깨야 하는 것이다.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킨 검은 커넥션을 발본색원하고 후진국형 인재의 재발을 막아야 하겠다. 학동 참사의 근본 원인이 된 재개발 비리의 실체를 캐내야 한다. 당연히 한 점 의혹도 있어선 안된다. 백주대낮의 황망한 사고, 다시는 없어야 한다. 강도 높고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요구하는 바다.

공공임대 전형 깨뜨린 광주형 평생주택

광주형 평생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세구 치평동 옛 상무소장 동쪽 나대지에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중형평형(전용 85㎡ 이하)을 포함, 총 460세대 규모로 1천371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2022년 공사 착수, 2024년 입주가 목표다. 또 이를 위한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Beacon Platform(비콘 플랫폼 : 빛고를 복합주거플랫폼)’이라는 작품이 당선됐는데, 다양한 개별공간인 단위세대를 가로와 마당으로 엮어 가며 수직, 수평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전형에서 벗어난 변화감 있는 입면과 배치가 높이 평가됐다.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은 설계과정에서 입주대상 시민 설문조사, 아이디어 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를 제공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과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시 최초로 ‘특별건축구

역’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 역시 광주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평생주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빛고음을 함축적으로 담아내 취지에 잘 부합하고 있다. 흔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주거 취약자가 거주하는 낙후된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지만, 광주형 평생주택은 계층간, 세대간 소통하는 혁신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선도적 혁신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광주시의 바람대로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와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살고 싶은 복합주거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적절한 임대료로 도심지 내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들어서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의 평생 거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수렴,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를 제공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과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시 최초로 ‘특별건축구

광주 대표공원을 위한 변화 필요하다

==취재수첩==



조 태 훈  
(사회부 기자)

2000년대 초반 가장 최근한 통신수단으로 사랑받던 공중전화부스가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휴대전화와 보편화 되면서 시민들이 공중전화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매년 250여 이상 줄어든 현재 광주지역에는 1천400여대의 공중전화부스가 남아있다. 이처럼 공중전화부스는 외면당하면서 줄어드는 추세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공중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분류돼 사용량이 적어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실제 광주 제1호 도시공원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광주공원에는 공중전화부스가 광주공원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중전화부스 관련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화부스에 대해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KT링크스측이 좋은 제안이나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해결될 문제다. 광주시가 해소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시내에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광주공원 부스 하나만 가지고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지역 KT링크스 관계자 측은 광주시가 공중전화부스를 구매해 기존한다면 서로 ‘윈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 남구는 최근 KT링크스와 협약을 맺고 전기 이륜차 공유 배터리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또 충북 충주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폐 공중전화부스 10개를 구입해 컬러리부스로 리모델링 했다. 광주시도 공중전화부스 전부를 변화시킨 힘들겠지만, 최소한 광주를 대표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광주공원이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              |                   |                    |
|------------------------------------------------------------------------------------|--------------|-------------------|--------------------|
|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편집국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650-2060    | 광 고 문 의 650-2099   |
|                                                                                    | 정지부 650-2030 | 사 진 부 650-2080    | 광 고 국 650-2072     |
|                                                                                    | 경제부 650-2050 | 사 설 실 650-2006    | 경 영 지 원 국 650-2010 |
|                                                                                    | 사회부 650-2040 | T V 본 부 650-2009  | 기 획 사업 국 650-2079  |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786-9488 | 인 무 국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                   |                    |